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간사
02-723-4250,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덩야핑 010-5660-4701 action4palestine.kr@gmail.com)
제목 [보도협조]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기자회견
날짜 2024. 10. 07. (총 2쪽)

보도협조요청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기자회견

집단학살 1년, 식민지배 76년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일시 장소 : 2024. 10. 07. (월) 11:00,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 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지난 1년동안 이스라엘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가자지구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주거시설을 포함한 가자지구 전체 건물의 3분의 2가 훼손되었고, 가자지구에서만 4만 1천 명이상이 살해당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중 1세 미만의 아기들도 710명이나 됩니다.
- 이런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한 서안지구를 비롯하여 레바논, 예멘, 시리아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핑계로 한 이스라엘의 레바논을 향한 대대적인 공습으로 지금까지 어린이 127명을 포함해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7,500명에 달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4일~25일 양일간 레바논에 탄약 2천 발을 동원해 3천회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레바논 공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이 되는 10월 7일(월)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집단학살 1년, 식민지배 76년 :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동안 격화되어 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중동 확전을 규탄하고, 공습 중단 및 즉각 휴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기자회견 <집단학살 1년, 식민지배 76년 :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 일시 장소 : 2024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발언1 : 샤리프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활동가)
 - 발언2 : 김지혜 (플랫폼c 활동가)
 - 발언3 : 이지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 발언4 : 백종성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 퍼포먼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